籌備團長尹應念 保釋中吉林으로遠走

嚴密한警戒도無效

소관종로서는황급중에밀의번번 소일코오양간고처는경찰의두통

근래에이르러무슨일인지종로서고등계원과 서대문서 고등계원의밀뇌가 빈빈하야 보는사람으로하여금 무슨중대사건이나 잇지나안흔가하는 의구의 마음을 갓게하는바 경찰당국은 사건을 넘녀비밀에부치고 발표치안흠으나모커로부터탐문한바에의하면 지난 대정십이년팔월경에 상해(上海)로부터주비단(籌備團)이라는 ○○단데를 조직하여가지고 다수한단원을인솔하고 조선내디에 들어와서 상해가정부교통부참사(上海假政府 臨時政府交通部參事)의직함으로써 권조선커오로대활동을 개시하야 다액의군자금을 모집하다가 경찰당국에 탐지한바되어 그해섯달에 인천에서 피착하야 대정십이년에데령위반강도(制令違反强盜)라는 무서운죄명알에십오년징역의판결을밧고그동안복역중이다가폐병으로 말미아마 대정십사년오월십삼일에 보석이되어 경찰당국의 엄중한감시하에 시내통의동구십삼번디(市內通義洞)그의집에서 병을치료하든 주비단장윤응념(籌備團長尹應念)은돌연히 어대로인지 자최를감추고말엇슴으로 경찰당국은 창황망조하야 대활동을 개시한것이라더라

『나는벌서 長春까지왓다』

서대문서에온윤응념의편지 김마리아도이사람이보냇서

권조선을상대로대대적으로군사금을 모집하다가 경찰당국에피착되어 데령위반강도(制令違反强盜)라는무서운죄명알에십오 … 밧고 복역중이다가 신병인폐병이나날이 침중하여져서 감옥안에서는 도저히 완치할수업슴으로 십사년오월십삼일에 형의 …

결국아무효과가업서 다만마음 … 만조조하든중 최근에 이르러서대문서고등계에는장춘(長春)의일부인이 부친나는벌서장춘에와잇다고라는경찰당국을조롱하는편지가윤응념의 엽서가왓슴으로경찰당국은분개한중심하는중이라는데 대정십년에 보석중에잇든 김마리아(金瑪利亞)녀사가상해로 탈출한것도 역시윤응념의 회책으로 그와가티교묘히탈출한것이라한다

어대간줄몰랏더니 吉林서書信보내

눈물어린안해의말소래 보석중밴어린애가울어

시내적선동일백칠십번디(市內積善洞)윤응념(尹應念)의 부인김항연(金恒然)녀사를방문하니우수의빗이가득찬듯녀사는 『글세요 지난시월십구일이엇서요 밧게나간다고 나가며 니수삼일동안을야주보하지를 안켓서요 그래 웬일인가하고 궁금히여이는중에 몃칠안돼서 장춘에서 편지가왓서요 내용은 별말업고당국의량해를 어드러하나 량해는 아니해주고 신병은나날이 더해지니이대로 다시 감옥에들어가면 곳죽고말터이니까 나는멀리가니 두어린아이나 잘길러달라는것이엇서요 그리고그편지는곳경찰당국에압수를당하고말엇서요 그리고형긔는 십오년인데 그동안소화 황데의혼인으로 사년이감형되고 또그동안에 사년간 복역을하엿스니까 인제는 한오년밧게아니남엇섯요이번은사에참가나하게될는지요』하며 슬슬씹우숨을띄웟슴뇌에 엽헤누엇든 어린아이가앵~우니이어린아이야말로그의부군이보석중에잉태하야아즉것그의부친을보지도못한금년한살먹은 딸식이라한다

損害업는小火

시내견지동(堅志洞)사십이번디 한영창(韓永昌)의집에서 이십사일오후한시진화하얏는데 손해는별로업섯다 하며 원인은 묘사중이라고

猛獸用實彈四十發 團成社便所서發見

종로서에서는조사에골몰

波長調査後 電波를妨害

「라듸오」를응용한 赤化防止策

◇사진은 지난번정십이던에 관결을밧든주비당원의공판광경 (압헤선이가윤응념)

關東州滿鐵沿線에 輸入出版物檢閱

安東縣서不遠間實施 일반은비상히주목중이다

일본내디와 밋조선에서 관동주(關東州)와 만텰연선(滿鐵沿線)부속디로수출하는출판물(出版物)을안동현(安東縣)에서 검열한다함은 관동령의다년간 현안(懸案)이는중 이번에이를실시키도 하얏는데 이는협의하고 또한표사키위하야 관동청고등경찰주임인 무파(武波)경부는 지난이십일에 안동현에와서 안동령과 협의한후 이십일일아츰에려순(旅順)으로돌아갓는데 무파씨의 총관불 취데령에관한 의견을 들으면 수입출판물의검열에대하야는 벌서부터 실시코자하얏던것이데 인원(人員)의형편으로이 배것지연되는것인데 일방으로 관동주와 만텰연선출관물령(滿鐵沿線出版物令)이미추부(樞府)의량해를어더칙령(勅令)으로공포되기만기다리는터인바이와동시에실시코자이번에그내용표사를온것이며이번에실시코자하는것은 정긔 간행물(定期刊行物)인데이에의하야만주에수입되는신문과잡지는권부검열키로 됨으로도 신문잡지만도매일백종이상이될러인바그것을될수잇는네로열는검열만다함은내단히큰일이고정긔간행이안인것은내무성(內務省)에서검열하는터이나그곳에서다시검열할필요가업고정긔간행물은종래도람시로 검열을하는일이잇는데 즉만텰표사반역류(抑留)사건과가튼것도 그것인바 그ᄯᅢ는일일히일본내디와 조선디방에서 가커오는 신문은 매일검열하얏는데 용이치안흔 큰일이엇섯는바 언제부터 이것을 실시하겟다함은 미리 말할수업스나 머지아니하야 발령될터임으로 검열의실시도머지아니한 장래에 실시될것이라고하며 조흥며 이문데는삽

개면의 현안이엇섯는데 이번에간신히추부의 량해를 어덧슴으로 조선총독부에서도 관동주의커사를 관망만하는터이고 이번의회(議會)에데출할관동령안은 관동주의그것을 긔초로작성되엇다하야 일반의시텅를 꼬은다더라(안동현면보)

◇上海出發當時의羅錫疇=단신오모경성에들어와동척(東拓)과식은(殖銀)에폭탄을던지고권총을발사하야 신일본명을살상한후자살한러석주(羅錫疇)사건은 아즉도 일반의긔억에새로운바어니와 상해(上海)에잇는그의친지들의발기로 … 잇섯다더라 (상해특신)(사진은 … 해를ᄯᅥ날ᄯᅢ의러석주)

白蠟爆發彈가진 假決死隊員被捉

군자금모집원이라평계하고 현금일천원을내라고위협해

지난이십이일오후여덜시경에가평군가평면신청리(加平郡加平面新城里)일백사십구번디 김등환(金等煥)의집에엇던조선인청년한명이 들어와서 자긔는상해가정부원(上海假政府員)인데이번에일백륙십이명의동지가결사대를 조직하야가지고 군사금을 모집하고자 들어왓스니현금일천원을 데공하라고 함으로주인김등환은 돈이업나고 거절한즉 폭탄일개를 내어보이며그중에 한개를내어던지고 그집을파괴하겟다고까지하얏스나김등환은 여전히듯지아니 하얏고그와가티하는가운데집안사람들이 부근주재소에 밀고를하야권총소원에게데포되엇는데 그범인은양주군사도면교곡리(楊州郡沙道面教谷里)이백오십칠번디 리종근(李鍾根)이라는자로서가평경찰서에서 취됴를한 결과가정부원이니 결사대이니 하는것은거짓말이오 소위 폭탄이라고하는것도 백납으로만든 거짓폭탄인것이 판명되엇다더라

朝鮮代表를招請

汎太平洋敎育會議와米政府明言

… 별도자미 스럽지 못하겟지마는 『필립핀』과인도(印度)를참가케하는 미국과 영국에대한일본정부의 국제뎍 면목도원간치안케하게되고 ᄯᅩ 말하서 조선민족대표가 동회의에 참가치못하게되면 동회의를 권후하야그리면에잠재잇는 사정을 격렬히 취던할 계획이라하며 그리되면 초미장을밧지못하는조선민족의정경도 손상되리라고 주목한다더라(와승론특신)

富山地方大雪

교통이전부두절되엇다

… 서 사범계에서는 그범인을데포하노라고 대활동을하든중 이십삼일오후열시경에 또시내 죽첨뎡삼뎡목(竹添町三丁目)에잇는『포ㅡ드』자동차회사의문권에부튼 진유켜간판을 ᄯᅦ여가려는것을 마츰순행하든 서대문서원이발견하고 즉시 그자를데포하야다가 엄중한취됴를 하엿다는데 이자는시내이촌동 삼십일번디(市內二村洞)에부덕을든박경환(朴景煥)(二十)이란자로 진유켜간판걸취를 전문으로하든자이라는바그피해액이실도수백원이되는바공범자도만흔듯하다고

五十圓火災

이십사일오전세시삼분경시내 이촌동 삼백이번디한성집(韓成集)(四四)의집에서 불이닐어난것을동리사람이발견하고 진화에 로력한결과피동세시이십오분경에 진화되엇다는바손해는약오십원가량이라고

滿洲에常設機關設置 軍事에主力을傾注

=남북만주일대에선전긔관설치= 조선내디에선전원을계속파견

高麗共靑新計劃

乞人凍死

某事件連累 李○○遂逮捕

신의주경찰의손에데포

지난번에 돌발한『ㄱ.ㄴ』사건에관련한 중대범인으로그동안경찰당국에서엄탐중이든리○○(李○○)은그동지네명과그간진남포(鎭南浦)에잠복중이다가요즈음에국경을돌파하고중국에잇는○○단본부로가려고신의주까지왓다가 드듸여 신의주서원에게탐문되어이십일에신의주의손에 피착 되엇다는데신의주서에서는 사실을 절대비밀에부치고 목하엄중한 취조를하는중이더라(신의주)

日本各地大雪 北陸線列車不通

금택지에도면차운면불능

일본 북륙디방(北陸地方)은 이십이일부터 투차강설(降雪)이잇서서 산간부(山間部)에는 한길이넘고 또한오륙척에 미친곳도 적지아니하며 금택시내(金澤市內)는삼척오촌부산디방(富山地方)은삼척인데 금택에서는바람이심하야 사내면차의 운면은불통하게되고 북륙선각역(北陸線各驛)에서는 렬차가전부중간에서 정거하야 오륙시간의연착(延着)을보고 혹은운면을 취소된것도 잇섯는바 이십삼일오후한시경에 이르러서 겨우대풍설은 조금던치엇스나 큰혼잡을이루워 잇더라(금택면보)

◇외투절도 시내립뎡정(笠井町)이백오십구번디 무직리태화(李泰華)(三0)는지난이십삼일오전열한시경 시내경성 상업학교(京城商業學校)에들어가 외투가격십여원짜리한벌을절취하여다가 시내황금뎡(黃金町)등뎡목일백삼십이번디등전질뎜(藤田質店)에 십원에입질하려는것을 소관본뎡서원이 탐지하고 인치하는동시에 그외에도 여죄가만흘듯하야방금취됴중이라고

富平水組紛糾와 關係當局의糢糊

始終不同한當局의態度 조선인실행위원대책강구

부평수리조합(富平水利組合)의 부당부과금(不當賦課金)으로인하야 동조합구역내디주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응징하자하야실행위원(實行委員)제씨가 각관계당국을 력방하야교 …

… 섭하기를 무릇오목차에 미친든바 그간신연과도는 여러가지사정으로 일시중지상태에 잇든중 이제듯는바에 의하면 그조합리사들은 암암중에 상급관계당국에교묘한 언사와비굴한 행동으로 그동해를어더며 커음교섭당시에는 매우디주편에 뭇정하든당국자들도 근래에일으러서는 태도가 돌변하야 조합의커리를기다리라고하는 모호한 답변을한다는데 동조합에서는 조곰도디주의 사정을 보지안코커음네로 진행합으로 구역내에잇는 디주는방금 불복신텅(不服申立)을 당국에 커술하는일방 실행위원중조선사람만은 불일간 모커에모히여 다시적극덕방책을 강구하기로하얏다는데 일방 일본사람으로 커음에부당부과에 대하야 반대하든자들에게는 조합당국에서 특별한조건으로 매수를한듯하다하야 디주측은 더욱분개하는중 이라는데 신년벽두에 동조합에대한 디주측의 태도는 자못 주목할만한 동시에압흐로또다시 일파란이 일어날것갓다고일반은주목중이라더라

새남편엇고 본남편박차

필경검사국행

본적을경긔도 수원군음덕면온석리 삼백팔십삼번디(京畿道水原郡陰德面溫石里)에둔 정한수(鄭漢水)라는 사람은 지난십오일에그의처정용분(鄭用分)(三六)과 시내서대문뎡일뎡목 이백칠번디(市內西大門町一丁目)에사는 김일만(金一萬)(三四)이라는자를간통죄로 종로서에 고소를데긔하엿다는바 종로서에서는그동안 권긔피고두명을 인치하여다가 엄중히취됴를 거듭하든중이며 그의죄상이 모다판명되엇슴으로 이십이일에 일건서류와함께 검사국으로 송치하엿다는바 그의자세한내용을 듯건대권긔정한수와 정용분은 벌서구년전에 결혼하야 어린아이를셋이나나허 단락한가뎡을 이루워오든중 재작년의 수재로 인하야 농사를 지어살수가업슴으로 내외가 다각기버리를할것을 약속하고 경성에올라온뒤에 권긔남편되는 정한수는 영등포(永登浦)에잇는엇던농장에 고용으로 그의처용분은남대문밧 세부란쓰병원안에 잇는식당의 고용이되어 다각기돈버리를하든중 동식당에 함께고용으로잇는 권긔김일만과 엇지엇지하야친밀한 관계까지 맺고웃웃내 부부까지되자는 약속을하야 이제것 볼의의관계를 계속하야오는 가운데 그의남편되는정한수에게 발각된바되어 그와가티검사국에까지 넘어가게 된것이라더라

丙寅의競技收獲記 (8)

地方으로도極繁한 蹴球界의收獲

聯盟組織의一新傾嚮

이收獲記가筆者의事情으로因하야中斷되얏슴은큰未安이다이제收獲記『其八』부터비롯하야나머지몃가지를마저紹介할려한다 (波荷)

第七回蹴球大會(體育會)는十一月十八日부터向四日間培材球場에開催되엇는데 崇德培材高普 延禧專門 戊午團等이優勝하니培材는運四年優勝하얏슴이特記할바이다

◇

새로운活路를 트게된半島의蹴球界그것은前述한바와가튼 實로劃時代的의 큰收獲이잇섯거니와 地方에서열린 모든大會도 또헤일수업슬만치 만헛다 이제그大畧을紹介하건데

◇

三月二十日 公州에서처음으로열린朝鮮蹴球大會(公光團主催)가 序幕을열엇고 五月二十六日부터向四日間全關西蹴球는東興(靑)彰南(小)兩軍勝하얏다平壤의關西體育會의第二回全朝鮮蹴球大會는 六月二十一二三日間開催 戊午(靑)崇實(中)運路公普軍이優勝하얏다

◇

八月三日에는 여름의元山을차저 海水浴간在京留學生과 對戰하야全元山軍이三對一로또元山留學生軍과二對一로再勝한것과新義州에서無產少年들의主催로大會를열어北星軍勝한것等은量으로少하나어든바質은잇슴직한것이엇다

◇

平壤에열린第六回蹴球大會 (基督敎靑年會主催) 는九月十六日부터開催 光成(小)光高(中)朝鮮蹴球團(靑)이各各優勝하얏스며 仁川에선 少年蹴球聯盟에創立된것等은一步를進한組織化의實例이다

◇

以上은海內各地의大畧이거니와海外로는 二月六日에在東京留學生이 强敵豐島師範을延長戰에三對二로快勝하얏고 六月十二·九의兩日間在東留學生蹴球大會에箕城軍이優勝한것과十月十日에在日本山口留學生이 同大會에서優勝한것 等은特書할바이다

米大學籠球選手 十一名即死！

自動車汽車衝突로

米國『베일러』大學의바스켓볼팀一行은『텍사스』大學의팀과競技를行하고저廿三日『오스틴』에向하는遊覽自働車를타고가다가鐵道에서汽車와衝突되야一行選手中十一名即死他十一名은重傷을입엇다더라(라운드락크發電)

米國갈早大軍陣容

今春四月二日橫濱發米國遠征에登할早大野球團의陣容은다음과갓더라【東京電】

(投) 藤本 水上原口 朝倉 中津川 (捕)伊丹(一)水原 (二) 西村 (三)井口(遊)森 (左)纐木(中) 永室(右)河合 (候)西川 淸水原

滿洲氷上記錄會

來卅日奉天에서全滿洲스케잇팅記錄大會를열터이오同日에安東縣에서는新義州까지遠滑會를開催한다더라

選拔軍日本遠征

필립빈國際野球協會協員『캐손』氏는上海及『마닐라』의優秀한野球選手中에서選拔軍을組織하야가지고今春五月頃에日本에遠征할計劃中인데同團은上海마닐라軍이라稱하고東京 大阪 神戶에서各大學또는實業團과對戰할다이라더라【上海發電】

종명자

▲요사이기생아가씨들은 아모리 치워도 머리에아모것도안쓰는것이시대라든가▲몸에는권에못보든두루마기에『만도』에야단으로겹겹이입으면서머리는무슨죄인지▲그것도그러치만영업자(營業者)의 영업정책상 간판을가리고다니면 영업에 큰영향이 잇슬더이닛가▲머리가 어려러지드라도 불가불그대로 다닐수밧게업서▲이세상에는 모든것이 발달됨을ᄯᅡ라기생의 광고술(廣告術)도써 발달되는보양이야▲개벽(開闢)잡지가 업서진분푸리인지 요사이에는 별별잡지가모다쏘다저나오는터인데▲그중에는 기생잡지「장한」이나오고ᄯᅩ 기생잡지「신청」이나온다나▲이모양으로나오다가는 결국부당잡지「덕두리」도나올것이요 광머잡지「땡닥궁」도나올것이요갈보잡지「이랏사이」도 나올걸▲나올터이면아모것이나마 나오너라 켜웅덩이가지고춤추는네엇던놈이부는잔소리하겟느냐

憲本關係

稀薄하게되고此에反하야憲本關係는漸次濃厚하게되리라고豫想 … 愛受運動이劉業등다는形勢까지보이고敎野靑木兩子等은盛하 … 는二十三日午前十時부터事務所에서對中外交問題에關하야前日 … 約좀無關항에對하야엇더한方法으로써中國의反省을促하도록하

大山敎授遂告發

山敎授도治安警察法違反이라고二十四日午前十時東京地方裁 … 左의聲明書를發表하엿더라 … 二、有色協으로朴烈問題가政爭中에서除去된것은可하나이것 … 眞相을闡明히하고應當의廓淸을期하고細軍의威信을中外 … 此機會를遲延케한責을免치못

(커네바二十一日發) 國際聯 日本代表佐藤尙武氏는國際聯 …

멍텅구리 사회사업 (29)

고양이귀신

저저 지금여긔 조그만독개비를하나 잡엇서..
조그만독개비?요ㅅ고리는뭐예요?
(一) 조그만독개비를 잡엇다고

엥?이게웬가? 고양이귀신인감?
아이그 치우니ㅅ가고양이가 사람차저온걸 그랫그만!
(二) 처들고보니 멀정한고양이

아이참큰일낫네고양이죽이면 죄만다는데어ㅅ덕해요?
헹!ㄴ일월일월대평춘
(三) 옥매의잔소리에 번정을부치다가

다듯기실혀요
퍼흐!
(四) 핑잔맛고 퍼흐!

文藝

彼等의三人 (Three of them)

─無産階級을主題로한─ 世界的作家와그作品의續

星兒

이압헤쓰말한「엑작」와가려 根本資金으로부터 無産階級의 主人公을 階級鬪爭史中의勇者로서 運命한사람으로또다시西班牙에「뗴으께로쏘」의三部作『人生의鬪爭』'The Struggle for life'가잇다 그러고또「뗴로쏘」에게다시가튼傾向을가진다고할만한 危險한都會 'The leity of desperate'가잇다 三部作인『人生의鬪爭』에서 初部인『探究』만을나는보앗스나大概로그가『人生의鬪爭』에捕捉하려고한것은 現代社會組織이 人生의맛이란根本意義를 極度로 苦케하고 그偏見과無慈悲가 갈스록自然한人間性을 虐殺하는것을 보다보다가못견되어서 大衆에게向하야 猛烈한抗議를 提出하려고한것이다 그럼으로도『探究』에서도 조그만엇던旅館의下女로잇는'뻬도라'란女子의 아들되는『마누엘』이란 靑年이『마도릿도』市로 처음에와서엇더한헌신가가의 심부럼군이되는데서부터『스토리』가始作이되는것이다

그는於焉間浮浪漢이나 無宿者들사이나 또는賣淫窟에外지 自由로아모 끄탄이업시出入을하게되어서 鮮血이흐르는싸홈과목숨을닷토아가는下流社會의 特有한色彩이나 今日的瞬間享樂主義의耽溺으로부터 집승보다도더말할수업는貧民窟에 코를쐬르는내암새가 永遠히몰아가는燈籠과가티 그의荒浪한生活의 印象이 次次로그의머리를차지해가고잇섯다

＊原始的獰猛을가지고 죽ㅣ죽 展開가되어갓나 한숨이맥힐것가든下層人生의 雰圍氣속에서『마누엘』은作家와함께 가만히 그謊擲되는人生意義를 노려보고잇섯다 極度로靜寂한暗夜에 神秘가사람의 世上에쐐어지려는大都市의한秒사이여!

『마도릿도』의深夜에는『마누엘』의姿態는 참으로壯嚴그것이엇다

街頭의角燈의빗츤 으슥푸레한아츰안개속으로 솟아흐르고 유리窓을 새여나오는 열분빗은 鋪道우에서춤을춘다 거무스름한녀마장수의그림자가 街里에무엇을주으려고곱으려첫슬쎄에 그것은 가장더러운物件의 化身과가터독가비처럼흔들렷다 거리에목몰이로얼골을쌋고 얼골이떠렁케뜬無産者가 새벽에올밤이가티지내간다 그 뒤에선또하나勞働者가지내간다

……正直하고부지런한『마도럿도』의街里는 또다시오날에 잇거리를마련하고잇다 뒤숭숭한밤의 混雜으로부터 明朗한아츰의새롭은일로 이都會가 옴저가려는째에『마누엘』은 깁흔冥想의深淵에서 아즉도잠어나지를안햇다

그는──다알앗다이街里에올밤이의存在와 勞働者의生存은 決코平行線上에서 조금치도合할빗이업스리라는것을……

한쪽에는 歡樂과戀愛의밤이며 또한편에는 勞働과疲勞의 太陽이다 그는?……그에게自己가 이第二階級에屬하지안흐면안될것가티 생각이들어갓다 即階級을橫行하는것이아니고 白晝日光알에서 일하는그쪽에 말이다

이探究는 그의 긴人生의第一期에面한門口인것이다 그럼으로 二部以下의作은 自覺한 勞働者로서 그의實感이아니면 안될것이다

그러고그의 危險한都會에는 이時代에눈뜬無産者의눈에비친 銳敏한文明批判이잇다

危險한都會!그것은 펌ㅊ나 擬心이두터운生氣潑剌한都會인것이다 아니다 그것은都會는 이아니다『스페인』그것이다

民衆은 모도다죽엇다 그들의頭腦는아미옹저임을그첫고西班牙는鬪動硬化로 苦悶하고잇는한개의肉體이다 조곰만옴죽여도 곳앞어진다 그럼으로進步라구는될수가업다 옴즉이지를못하니안─

이다죽어가는『스페인』을 콤睡로부터흔들어일으킬려고 그의心身의모든努力을 앗기지안는主人公'펜친'도

良心이란무엇이냐 蕪躁그것이아니고──正直이란무엇이냐 機械的束縛에不過한그것이──

『스페인』의國民은 오죽『무안』人가티일하고『쮸』와가티 돈을모르면그만인가 아니──

白銀이흐르는月光알에서 그는暗濟한나라의運數와압길에눈물을흘릴뿐이다──此篇了──

『月刊朝鮮』創刊號豫告

不日出來 定價拾錢

童話 生命水(一)

넷날에 한님금님이 계섯습니다 그런데임금님는 병이대단하셧습니다 그리하야 이님금님의명(命)을구하려고는아무도 생각지안엇습니다 님금님는 왕자(王子)를세분두엇습니다 왕자들은 님금님의병이 점점때하여지는것이 슬허서 궁뎐(宮殿)압마당에가서 울고 잇섯습니다

그런때 엇던 한나이와서

『너의들은 모다 무엇이슬허서 우느냐』

하고물엇습니다 왕자들은 아버님께서 병환이대단하신데 아무리하야도 구하야볼수가 업서서 필경아버니는 돌아가시기쉽겟다고 그로인에게 말하얏습니다 이말을들은로인은

『나는그병을고칠약을안다 그것은 생녕수(生命水)라고 하는것이다 그것을먹으면 님금님의병은나서 전과가튼 건강한몸이되신다 그러나그약을 구하기가 어렵다』

고말하고 어데로인지 사려저버렷습니다 그리하야 큰왕자님는

『아버님의병환을 내가꼭구하야돌일러이다』

하고 병든님금님한테가서

『아버님의 병을고칠것은생명수라는 약밧게업습니다 제가 그약을구하야 가지고 오겟사오니 베칠날미를주십시요』

하고님금님의청하엿습니다 님금님는 이말을들으시더니

『안된다 그것은 위험한일이다구렬러이면오히려내가죽는게낫다』

하며임님님은 말슴하섯스나 왕자는 오래동안오래동안 안저서 간청을 하엿습니다 그리하야님금님도 엇절수업시 왕자의말을 들어주섯습니다 왕자는

『그약을가지고오면 내가아버님ㅣ 데일귀하시는 아들이되야 이나라를 내가물려갓게되겟지』

하엿습니다 그리하야 왕자는먼길을 써낫습니다 말을타고얼마쯤가려닛가 길에인 조그만난쟁이하나이서잇섯습니다 난쟁이는왕자를보고큰목소리로

『어데를가는길이냐 그러케급하게?』

하고물으나 왕자는 패ㅅ심이역이고

『이놈아 그런것은알어무엇하느냐!』

하며그냥지내가버렷습니다 그리하야 난쟁이는 크게로하여 왕자에게 압흐도 엇던조치못한일이생기도록 빌엇습니다 왕자는 어느틈에 산과 산이협착 하여진 곳으로 들어가게 되엇습니다 가면갈수록 산과산사이는점점좁하지서나종에는한거름도 더갈수업시 되어버렷습니다 말머리를돌리킬수도 업고 자긔가말에서 나려올수도 업시 목상자(箱子)속에들어박힌것가티되엇습니다

병드신 님금님은 왕자가돌아오기를기다리고기다리엇스나 왕자는돌아오지를아니하엿습니다 그러즉 둘재왕자는

커에게그약을구하려가게하여주십시요

하고말하엿습니다 이것은

『형이죽으면 이나라는내차지가될것이다

라고생각한것이엿습니다 님금님은처음에는역시길을써나는것을 허락지 아니하엿섯스나 나종에는엇절수업시 원한대로 돌어주셧습니다 둘재왕자는 형이가든길로갓습니다 그러자역시「난쟁이」를 맛낫습니다「난쟁이」는왕자를보고

『그러케 급히 어데를가느냐』

하고물엇습니다

『무엇! 난쟁이가! 그런것을 알어무슨소용이냐?』

왕자는 이러케말하고 열도보지안코 말을놀려갓습니다 난쟁이는 이둘재왕자도 조처못한일이 생기도록 빌엇습니다 그래서이왕자도 형과가터 산과산사이에 쎄어서 압흐로도뒤로도 못가게 되어버리고말엇습니다

누구든주커너문채하는사람은 다ㅣ이와가튼난을맛게되는것입니다

둘재왕자도나가서 영ㅣ돌어오지를 아니하얏기 이번에는맨ㅁ헤왕자가 길을써나 그약을구하여오려고 님금님의 말슴엿주엇습니다 님금님는 할수업시이왕자도 길을 써나게하엿습니다 왕자는 역시난쟁이를 맛낫습니다 난쟁이가

그러케 급히 어데를 가느냐고 물으닛가 왕자는가든걸음을 멈추고 난쟁이와 이야기하기를

『나는 생명수라는것을차즈려가는길이요아버님께서큰병환으로곳돌아가실지경이니가』

하며 공손히말하엿습니다 그래서난쟁이는

『그래 생명수가 어듸잇는것을아시요』

하고물엇습니다그리하야왕자는

『네모름니다』

하고말하엿습니다

키일혼帆船 【24】

李益相 作 李靑田 畫

혜경는권주불 써난뒤로 세고을의 강연을 예뎡과가마티치고 호남선(湖南線)연도에잇는 김제(金堤)에 이르기는 그가 창호와함께 리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그진날이엇다 털도연선에잇는 여러고을에서 돌려달라는 부탁도잇섯스나 창호와 약속한일도잇고 또한 치위를 무릅쓰고 다니느라고 몸이고달프기도해서 모다거절을하고 그곳에서 최후의 강연을할예뎡이엇다

그리하야 그날의 강연도 예정대로 마치엇섯다

마치고난 혜경은 무거운짐을버슨것가티 몸이 겁분하며진듯하엿다 이제는 좀편히 집에돌아가서 책도보고 여러친구들 만나보기도할수잇다하엿다엇쨋든자유스러운몸이 된것이 깃벗다 그러나무엇보다도 그의마음을 조급히굴게한것은 창호와 리리에서 만나기로 사로약속 한것이엇다 자긔스스로도 자긔의마음을 알수업슬만큼 그날이 기달려졋다 그는 참이상스러운일이라하엿다 그러라고 창호의 모든인상이 그머리에집집히 새여잇는것갓지도안햇다 눈을감고 그의코가 엇더코 눈이엇더코 머리가엇더하다고 일부러 생각하기전에는 그의형용가튼것도 언늣눈압헤 써올르지안햇다 그러면서도 그에대한 모든상상과 긔억은 혜경의마음에서 써난일이업섯다 자긔의마음이 가만솟써에는『참으로 괴상한일도 잇다』하는것이 그의리성(理性)의 부르지짐이엇다

그는 그동안 돌아다니느라고대단히 밧벗지마는 그래도 틈틈이 편지를 보내엇다 그러나 답장을 바더보지는 못하엿다 물론 그가 답장을 원하지도안햇다 이것은 뎡켜업시 도다다니는 몸이되엿는사람의 서신을 바들 곳이 업는까닭이다 말하자면 자긔의뜻을 거리집업시 창호에게 보히엇지마는 창호의자긔에 대한 뇌사가 엇더한것은 지금것 모르고 혼자 날뛴것이엇다

이런날을 생각할사록 일삭이라도 속히 창호를 만나 사혀이약이라도 충분히하고 십헛다 이일을일동안은 혜경에게는 매단지리한 세월이엇다

이날도 밤이 깁혓슬때에강연이끗나자바로혜경는 혜숙과함께 그고을여러청년의 인도로려관으로돌아왓다

그런데 웬일인지 몸이 몸시 치웟다 처음에는 일긔가 너무차서 그러한것인가하고 방알에목에 들어누어 몸을 녹여보앗다 그러나 오한긔운은 덥덥 더햇다 그리고 두통이 나가시작하얏다 밤이 깁허갈사록 몸에는 열이올랏다 권신이 불덩이와가티 싸가워다 사지가 쒸릿쒸릿압헛다 밤이 너무나 깁허의사를 청하기도 어려웟다

혜숙은 혜경의 졸디에난병에간담이 서늘하얏다 그리하야 자는주인을 깨워이르키고 탱수를 대야에 가저오라하야 수건을빨아 혜경의머리를 식히면서

『언니!아마 감긔가봐요! 의사를 좀청해올가요?』

하고물엇다

『지금 이밤늦에 엇더케복려오니? 오는밤이나 지내보고 좌우간 엇더케해보지!』

혜경은 옹옹알는소리로 대답하엿다

◇天氣豫報 小雪後晴
◇溫度 廿四日正午 四、三 廿三日最低 二、二
◇比較
日出前七時四二 日入後五時四七 晝間十時〇五 夜間十三時五五

現代評論

新聞紙法에依한月刊雜誌

보아라嚴正한論評을! 읽어라嶄新한記事를!

創刊號出來

定價金五十錢

創刊號重要目次

京城鍾路一丁目五十五番地
現代評論社
電話光化門一〇八六番 振替京城一五八四七番
(定期購讀을願하시는분은本社에問議하시오)